

6.4 포천시시장 보궐선거 11명 출마 예상

민주당, 한나라당, 친박연대, 민노당, 무소속 최소 5者구도
 한나라당 후보 공천이 최대변수, 탈락자 무소속 출마할 듯



장승호 (통합민주당) 고조홍 (한나라당) 박용구 (한나라당) 양호식 (한나라당) 이문용 (한나라당) 이상만 (한나라당) 정병학 (한나라당) 차상구 (한나라당) 안재웅 (친박연대) 유병권 (민주노동당) 서장원 (무소속)

6월4일에 치러지는 포천시시장 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예비후보군은 출마제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까지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1명이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무소속 등이 출마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5대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 2-3명이 출마할 경우 최대 8대의 경쟁률까지 될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한나라당 포천시시장 공천을 누가 받을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인사들의 경우에는 서로가 자신이 적임자라고 하면서도 내심 불안해 하는 모습이다. 통합민주당은 지난달 30일까지 포천시시장 후보공모를 마치고 면접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포천시시장 보궐선거 최대 변수인 한나라당 공천자 결정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과 7일 이틀간에 거쳐 포천시시장 공천신청을 받은 결과 고조홍(55세) 국회의원과 박용구(53세) 뉴라이트 포천연합 상임대표, 양호식(48세) 포천시새마을민회회장, 이문용(65세) 전 경남신문사국장, 이상만(50세) 전 경기도의원, 정병학(58세) 전 포천시 생활지원국장, 차상구(56세)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경제통상분과위원 등 7명이다. 친박연대에서는 안재웅 포천시전철유치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유병권 민주노동당 포천시위원회 위원장이 포천시민을 대표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무소속으로는 서장원 예비후보가 농촌과 각종 행사를 방문하면서 표발같이 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예비후보 통합민주당 포천시시장 공천신청은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장이 유일하다. 이같이 공천신청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4.9국회의원 선거당시 득표율이 낮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은 지난달 30일까지 공천신청을 마감하고 면접심사까지 마친 상태다.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장이 공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승호 예비후보는 기독교 인사와 지인 등을 통해 표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 포천시시장 보궐선거 최대 변수는 한나라당 공천을 누가 낙점되는가에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예비후보 11명 가운데 7명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한나라당 공천신청자들 가운데 일부는 중앙당에 머물면서 인맥을 통해 공천권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또 중앙당과 큰 인맥이 없는 인사들은 포천지역에서 각종 행사장이나 5월 장터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자가 결정될 경우 2-3명 정도가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포천시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3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만2천표를 얻으면 당선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낙천자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번 보궐선거는 다지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친박연대 예비후보 안재웅 포천시전철유치위원회 운영위원

원장이 친박연대 공천이 내정된 상황에서 득표활동을 하고 있다. 안재웅 예비후보는 박용구 전 포천시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포천지역에서 친박연대 성향이 일정 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안재웅 예비후보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노인층을 겨냥해 득표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민주노동당 후보로 유병권 민주노동당 포천시위원회가 출마한다. 유병권 예비후보는 많은 후보들이 포천개발을 말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병권 예비후보는 이번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노동자와 농민 등이 적극 후원해 줄 것으로 믿고 득표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무소속 예비후보 서장원 전 포천군의회 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서장원 예비후보는 통합민주당 후보로서는 당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 서 예비후보는 농업경영인 출신과 포천군의회 의원 경력을 앞세워 어느 후보보다 인지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서 예비후보는 이번 포천시시장 출마가 3번째인 점을 부각시키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3, 4, 5, 6면>



어버이날 흥겨운 행사 마련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주관으로 5월9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제36회 어버이날을 맞아 포천시 어른신축제 한마당 잔치에 앞서 이금중 지회장이 기념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허승원 기자 forme64@paran.com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

포천시 군내면 포천광역버스터미널 사무실로

포천시청내 가건물에 위치한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가 조만간 포천시 군내면 포천반월아트홀 맞은편 터미널로 이전하게 된다. 포천시로부터 5월9일 공식문서로 사용승인을 받은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계, 지도계, 홍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7명의 직원과 보궐선거 파견직원 7명, 부정선거감시단 등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매우 비좁은 현실이다. 새로 이전할 터미널의 경우 130평 규모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어 선거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3, 4, 5, 6면>

지금 포천은 이렇다 59

포천시시장 예비후보 11명 출마예정

개인 영달추구 ... 유권자 냉담한 반응
 혈연 지연 학연 떠나 능력 갖춘 인사 선택해야

6.4포천시시장 보궐선거를 20여일을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무려 11명에 이른다. 물론 한나라당 인기도를 감안한 수치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천시장을 꿈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포천시장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거나 혹은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지역정가에서는 포천시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30%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포천시시장이라는 사람은 개인의 명예를 얻는다는 것보다는 포천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이다. 그런데 일부 입후보예정자들과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뿌리깊게 내려온 정풍이 아닌 정풍인 것이다. 지연과 학연, 혈연에 얽매어 '나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든 사람이 있는 듯 하다. 게다가 전체 유권자 가운데 투표율 30%이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여기는 인사들도 있다. 이들은 포천시장이나 선출직에 진출할만큼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지역에 관해 심도있게 고민해 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는 포천출신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포천지역은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 태어난 곳이 어디든지 포천에서 살고있는 사람은 포천시민이고 포천시 전체 인구가운데 과반수를 넘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제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공직자는 흔히 머슴이라고 한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은 스스로 공복이라고 자처한다. 공복을 꼭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공식은 없다. 그리고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시민들은 마땅히 능력 있는 사람을 머슴으로 부려야 한다. 공직자들은 지역출신이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방향을 잘 설정하고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넘어 우주시대에 살고있다. 얼마전 한국인으로는 이소연씨가 우주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도 포천지역 선출직 공직자가 꼭 포천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정하는 것은 매우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병커C유 · 무연 · 경유 · 등유

(주) 건 화

542-0001

정품 정량 신속배달

(주) 건 화

SK 주식회사 일반유 대리점

- 대리점 영업부 542-0001
- 건화 주유소 543-0001
- 천지 주유소 542-0010
- 화림 LPG 충전소 543-8877
- 건화 저유소 542-6100